www.grtc.co.kr

GWANGJU
METRO PLUS

2025 vol. 02



남광주역 캐노피 야경사진

광주교통공사
제9대 문석환 사장 취임

시민과 함께, 더 편리한 광주를 향한 새로운 출발







▲ 문석환 사장 취임식 현장

지난 12월 16일, 광주교통공사 제9대 문석환 사장이 공식 취임했다. 22년간의 감정평가사 경력을 바탕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비상임이사, 광주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 금융권 근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을 쌓아온 문 사장은 재무·회계는 물론 경영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춘 인물로, 공사 안팎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이날 취임식은 광주광역시장을 비롯해 임직원과 내·외빈이 본사 대강당을 가득 메운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뜨거운 환영 속에서 진행된 취임식 현장은 광주교통공사의 새로운 출발을 향한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했다.

문석환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이동이 편리한 도시 광주, 시민과 함께하는 광주교통공사를 만들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공사가 나아갈 방향으로 네 가지 핵심 전략 목표를 제시했다.

1. 과학적이고 선제적인 점검 관리에 기반한 「안전우선 책임경영」
2. 지속가능한 교통복지와 디지털 혁신을 실현하기 위한 「미래지향 혁신경영」
3. 최상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 「고객감동 상생경영」
4. 수익원 다각화와 효율적인 재원 활용을 통한 「건전재정 자립경영」







▲ 취임식 당일 용산 차량기지 점검

이어 다가올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개통 준비를 비롯해, 지역사회 교통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 강화, 사업 다각화 추진,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요금 현실화율 개선, 주요 업무 분야에 대한 AI 활용 역량 강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며 공사의 새로운 도약 의지를 분명히 했다.

뿐만 아니라 현 정부의 ‘실용적 복지’ 노선을 반영해 수요자 중심의 이동 편의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도 적극 앞장서는 등, 성장과 상생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향한 당찬 포부를 밝혔다.

지난 20여 년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끊임없는 변화와 도전을 이어온 광주교통공사는 문석환 사장의 힘찬 출발과 함께,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최상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며 또 한 번 대중교통이 편리한 도시 광주를 만들어가기 위한 공사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다.

시민의 자부심이자 광주의 자랑이 되는 모범적인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문석환 사장의 힘찬 목소리에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린다.



빛나는 성과로 돌아보는 2025 광주교통공사

광주교통공사는 2025년 '고객 중심', '안전 최우선', '소통과 신뢰'의 가치를 토대로 대중교통 운영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고객만족도와 서비스 품질 부문에서 전국 1위를 잇달아 달성하고, 안정적 노사 문화와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며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01 국토교통부 경영·서비스평가 종합 1위 - 최고의 대중교통 운영기관으로 인정



국토교통부의 '2024 대중교통 운영자 경영·서비스평가'에서 공사는 종합 1위를 차지해 전국 최고 수준의 운영기관임을 다시 확인했다.
평균 87.43점을 크게 상회하는 92.78점을 기록했으며, QR안내 도입, 안내 유도선·폴사인 정비, 수유실 개선 등 이용객 중심 서비스 확대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를 통해 열차 지연 및 사고 '제로화'를 실현하며 시민 신뢰도 역시 크게 향상됐다.

02 고객만족도 전국 1위 - 역대 최고점 달성



공사는 행정안전부 '2024년 지방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도시철도 부문 1위를 차지하며 역대 최고점인 91.9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도시철도 평균 대비 3.1점, 지방공기업 전체 평균보다 6.7점 높은 수준으로, 현장 중심 서비스 전략의 성과가 입증된 결과다.

특히 '도시철도가 지역 주민에게 주는 편익성' 항목에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다가올 2호선 1단계 개통을 앞두고 시민 기대감을 높였다. 공사는 CS미션과 소비자중심경영(CCM) 선포를 기반으로 고객 감동 실현에 더욱 집중하고자 한다.

03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5년 연속 우수기관 - 안전 최우선 운영체계의 성과



공사는 국토교통부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에서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안정적 안전관리 역량을 인정받았다. 위험관리·비상대응·교육훈련 등 핵심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상무역 침수 시 신속한 대응과 긴급복구를 수행하는 등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도 강화했다.
또한 승하차 정보를 활용한 다중 인파 관리, 빅데이터 기반 전동차 예방정비 등 데이터 기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며 운영 안정성을 향상시켰다. 공사는 앞으로도 AI·데이터 기반 안전기술을 고도화해 시민이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도시철도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04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 22년간 이어온 무분규의 힘

공사는 고용노동부 '2025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며 전국 40개 기관 중 한 곳에 이름을 올렸다. 22년간 무분규 사업장을 유지하고, 통상임금 관련 제도 개선과 임금 격차 완화 등 상생 기반의 조직문화를 구축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이번 선정은 안정적 도시철도 운영의 기반이 전 직원의 협력과 신뢰에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다.



광주교통공사는 올해 고객서비스 향상, 운영 효율 강화, 안전관리 고도화 등 핵심 분야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이뤄냈다. 각 사업의 성과는 시민의 이용 경험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도시철도 운영 기반을 한층 탄탄하게 만드는 데 기여했다. 공사는 앞으로도 현장에서 얻은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서비스와 안전한 교통 환경을 구현해 나가고자 한다.

투명한 경영, 신뢰받는 광주교통공사

2025년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 '종합청렴도 1등급'에 도전하다

2025년도 반부패 청렴활동 결산

광주교통공사는 2025년 한 해 동안 '청렴하고 투명한 Clean 공사'를 목표로 반부패·청렴 정책을 전사적으로 추진해 왔다. 기관장이 직접 청렴회의를 주관하며 주요 과제를 점검해 청렴을 조직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자리 잡게 하는 데 힘썼다.

우선, 기관장 주관 반부패·청렴 회의를 통해 부패 취약분야를 정기적으로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보직자 이상 전원이 참여한 '청렴다짐선언식'을 실시하여 경영진이 먼저 솔선수범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를 약속했다.

부패 위험이 높은 시기에는 선제적 예방활동을 강화했다. 명절·인사철 등에는 청렴주의보를 발령하고 선물 신고센터 운영, 복무 점검, 청렴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전개해 부정적 관행을 사전에 차단하고, 위험을 인지하면 그냥 지나치지 않는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했다.

직원 참여형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사내 청렴소식지를 통해 정책과 사례를 공유하고, 청렴 N행시 공모전과 캘리그라피 전시를 통해 다소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청렴 가치를 보다 친근하게 전달했다. 또한 음주운전 비위 예방을 위한 '음주운전 비위 자체점검 제도', 실무 중심의 '부정청탁 대응 매뉴얼', '일상감사 자가 체크리스트' 등을 마련해 스스로 점검하고 예방하는 기반도 강화했다.

광주·전남 공공기관 협의체인 '빛가람 청렴실천네트워크' 회장기관으로서 지역 청렴문화 확산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유관기관과 합동 청렴캠페인, 우수사례 공유 등 협력을 강화하며 지역사회가 체감할 수 있는 실천 중심의 청렴 활동을 펼쳤다.



2026년, 청렴도 도약을 향한 실천 계획

광주교통공사는 2025년 성과와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을 '청렴도 도약의 해'로 삼고,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 1등급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먼저, 2025년 내부청렴도 조사와 부패위험성 진단 결과를 반영해 2026년 반부패·청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업무 전 과정에 숨어 있는 부패위험 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청렴해피콜 운영을 고도화해 시민·이용객의 의견을 신속히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고, 계약 업무의 공개성과 투명성을 높여 살펴보면 믿을 수 있는 공사에서 "확인하지 않아도 안심할 수 있는 공사"로 나아가고자 한다.

내부적으로는 기관장이 직접 참여하는 청렴 간담회와 부서별 현장 소통 등 CEO 중심의 소통을 강화한다. 회의·보고·의사결정 과정 곳곳에 청렴 기준이 자연스럽게 작동하도록 실천 규범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교육은 규정 전달을 넘어서 실제 업무에서 마주치는 사례 중심으로 진행해 인식 개선과 내재화를 강화하고, 이해충돌, 연고주의, 특혜 시비 등 발생 위험이 높은 유형에 대해 사례 분석과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직원 개개인이 자신의 자리에서 지켜야 할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광주교통공사 하반기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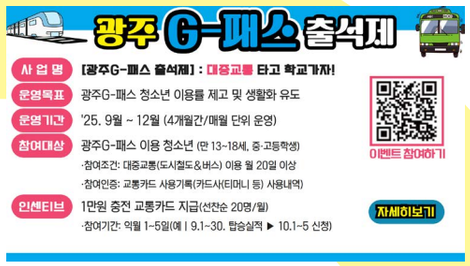
07-09월

교통약자 체험 교육 실시

광주시 서구 농성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및 배려문화 확산을 위해 교통 약자 체험교육을 시행, 교통 취약계층의 불편 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해소하고 이동 편익을 제공



청소년 대상 '광주G-패스' 출석 이벤트 진행



청소년 대상 월 20일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교통카드 증정, 친환경 교통문화 확산과 탄소중립 실천에 지역 청소년 참여 유도



카카오와 민관 협력 업무 협약 체결

교통약자 정보 제공 및 대중교통 접근성 강화를 위해 카카오와 협력, 승강장 연단 정보 등 시설 현황을 '카카오맵'에 반영해 시민 편의와 안전성 제고

여름방학 '다문화 가정 어린이 특별 견학'

고려인마을 아동센터와 협업해 다문화가정 어린이 20여 명 초청, 전동차 수동 운전·안전교육 등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교통문화 이해와 현장 경험 제공

'열차 안전 운행의 날' 캠페인 시행

양동시장역에서 '열차 안전 운행의 날' 캠페인을 실시해 승객 대상 안전 수칙을 홍보하는 등 안전의식 확산에 동참. 청렴·인권 홍보도 함께 진행하며 책임 있는 도시철도 운영 문화 형성에 기여

세종도시교통공사와 대중교통중심 도시 구현 위해 협약 체결

양 기관이 대중교통 활성화와 기술협력, 교통 정책 발굴 등 공동 추진에 뜻을 모아, 지속 가능한 교통체계 구축과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 기반 마련

10-12월

소방안전관리자 역량 강화 특강

소방 전문가 초청해 화재 대응·소방 설비 관리 등 실무 중심 교육 진행, 현장 대응력 제고로 안전한 도시철도 이용 환경 조성에 박차



철도차량정비 분야에 AI기반 유지보수기술 도입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공동 연구로 인공지능·디지털트윈 기술을 정비 현장에 적용, RAMS 기반 유지보수 체계 고도화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철도 운영 추진

2025 우수 기관사 선정

무사고 운행의 김현 과장과 이어진 대리가 올해의 우수 기관사로 선정, 탁월한 운전 기량과 책임감으로 시민 안전과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



저출생·지방 소멸 극복 캠페인 동참

상무역에서 '저출생·지방 소멸 극복 캠페인'을 진행하며 인구 문제에 대한 시민 공감대 확산에 동참, 광주관광공사에 이어 릴레이의 네 번째 주자로 참여해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사회적 책임 경영 실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수상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절감 성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 전사적 에너지 관리와 온실가스 감축 실천으로 친환경 경영 수준 제고에 기여

한국장애인개발원과 장애인 일자리 창출 위한 업무협약 체결

장애인 고용 확대와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위해 도시철도 현장 배치 등 협력사업을 추진,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기반 강화와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

지역상생

광주교통공사, ‘착한 소비’로 지역 경제에 온기 불어넣다.

골목형 상점가 방문부터 공공배달앱 이용까지, 지역과 함께 숨 쉬는 상생의 발걸음

광주교통공사가 지역 곳곳에 따뜻한 발자국을 남기고 있다. 최근 공사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의 일상 속 소비가 다시 지역으로 순환되도록 하는 ‘착한 소비 캠페인’을 적극 전개하며, 광주시의 ‘골목상권 살리기’ 기조에 힘을 보태고 있다.







발로 실천한 상생

골목형 상점가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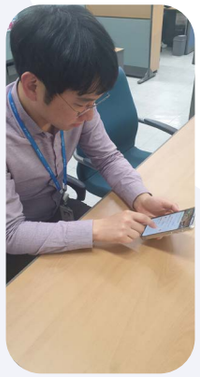
지난 9월, 공사 직원들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인근 골목상권을 방문해 지역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소비 촉진 운동’에 참여했다. 직원들은 지역 식당과 카페를 찾아 점심식사와 테이크아웃 커피를 구입하며 상인들과 직접 소통했다. 이 과정에서 상권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듣고, 작은 소비이지만 연대의 의미를 담은 마음을 나누었다.

또한 추석을 앞두고 양동시장에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제수용품과 생활용품을 구입하며 상인들과 온기를 나누었고, “전통시장의 활력 회복이 진정한 민생 회복의 출발점”이라는 공감대를 함께 형성했다. 참여직원들은 “공기업이 먼저 지역 상권을 이용하며 소비의 선순환을 만드는 것이 공공의 역할”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지역과 상생하는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클릭으로 이어진 나눔

공공배달앱 이용 캠페인





광주교통공사는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 영역에서도 지역경제 순환의 주체로 나섰다.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전 직원이 참여한 ‘공공배달앱 이용 캠페인’을 운영하며, 민간 플랫폼 대비 높은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땡겨요’와 ‘위메프오’를 활용해 지역 상권을 응원했다.

사내 게시판에는 직원들의 인증 참여가 이어졌고, 이는 자연스럽게 지인에게도 확산되며 지역 소비문화를 넓히는 선순환의 흐름을 만들어냈다. 공사 관계자는“공공배달앱은 단순한 편의 서비스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를 지키는 시스템”이라며, “많은 시민이 이용할수록 지역의 돈이 다시 지역으로 돌아가는 건강한 구조가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이와 함께 지역 화폐 사용 활성화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전 직원이 ‘광주상생카드’와 ‘온누리상품권’ 구매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내수 경기 회복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일상의 작은 실천들이 모여 지역경제의 온기를 되살리고 있는 셈이다.

지역과 함께 걷는 공기업의 길



온누리 상품권

‘광주교통공사는 단순한 교통서비스 제공 기관을 넘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생활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전통시장 이용의 날’, ‘공공배달앱 이용 캠페인’, ‘상생카드 구매 운동’ 등은 모두 시민의 일상 가까이에서 지역 상권을 지키고자 하는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다.

공사 관계자는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공기업이야말로 시민의 신뢰를 얻는 길”이라며, 앞으로도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드는 상생 경영을 꾸준히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따뜻한 손길로 채운 한 해, 하반기 광주교통공사의 봉사 이야기

광주교통공사는 지역의 이웃을 살피며 따뜻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작은 손길들이 모여 지역사회 곳곳에 희망의 온기를 더하고 있다.

취약계층 여름나기 주거환경 개선

서구 쌍촌동의 독거노인 가정과 동구장애인복지관을 찾아 도배·전기·설비 정비 등 생활환경을 직접 개선하며 더 안전하고 편안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따뜻한 손길을 보탰다.

집중호우 피해 농가 복구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광산구 용곡동 농가를 찾아 집기 철거와 환경 정비를 도우며 주민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왔다.



가을맞이 노·사·민 사랑 나눔

서구 가족센터와 첨단2동 봉산 경로당에 50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전달하며 지역 공동체가 함께 따뜻한 가을을 맞을 수 있도록 연대의 마음을 나눴다.

겨울맞이 사랑 나눔

농협광주본부와 함께 취약계층을 위한 쌀과 식료품 지원을 통해 겨울의 시작이 더 따뜻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마음을 전달했다.

폭염기 시민 건강 돌봄 활동

남광주역에서는 전남대 간호대학과 함께 건강 측정과 상담을 진행하며 무더위 속 시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응원하는 마음을 전했다.

지하철역 의료봉사

양동시장역에서는 160여 명의 시민에게 건강 상담과 운동 처방을 제공해 지하철이 단순한 이동 공간을 넘어 건강을 나누는 공간이 되도록 함께했다.



가을철 농촌 일손 돕기

북구 청풍동 주말농장에서 들깨 수확과 환경 정비를 도우며 농가의 바쁜 손길에 작은 힘을 보탠 상생 협력이 이어졌다.



평동역 '따뜻한 겨울나기' 행사

아름다운가게, 광산구가족센터와 함께 다문화가정과 이주노동자에게 방한용품 5,000점을 전달하며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공사는 지역과 함께하는 따뜻한 동행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책으로 성장하는 광주교통공사, 함께 만들어가는 독서문화



광주교통공사는 7년 연속 '독서경영 우수 직장' 인증에 걸맞게, 올해에도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과 개선 사업을 추진하며 '직원이 성장하면 조직도 성장한다'는 가치 아래 일터 속 독서문화를 확장해왔다.

올해 3·5·7·9월 진행된 독서후기 이벤트에는 총 239명의 직원이 참여해 읽은 책과 인상 깊은 구절을 공유했다. 세대와 직무를 넘나드는 참여가 이어지며, 공사만의 따뜻한 독서문화가 자리 잡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도서자료실은 구성원이 더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신간 도서 소개 코너' 운영, 장르별 큐레이션 확대 등 콘텐츠를 강화했다. 또한 서가 재배치, 열람 공간 정비 등 환경 개선을 진행해 보다 쾌적한 독서 공간을 마련했다.

직원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노력도 지속됐다. 특히 신규 도서를 신청한 팀이 우선 대여할 수 있는 '팀 우선 신청제도'를 운영해, 팀 단위 독서활동을 활성화하며 도서자료실 이용률을 높였다.

한편 올해 최다 대출 도서는 『혼모노』로 나타났다. '나다움', 일·삶의 균형, 자기 탐색 등 직원들의 관심사와 맞닿은 주제가 높은 공감을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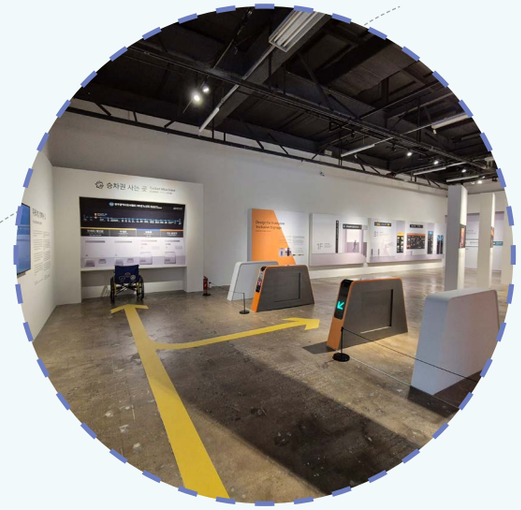
▲ 25년 최다 대여 도서



▲ 도서자료실 내 신간도서 코너

공사는 앞으로도 직원들의 독서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하게 사고하며 성장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위해 도서자료실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책을 통해 하루가 깊어지고 생각이 연결되는 '책 읽는 교통공사'의 여정은 내년에도 계속된다.

2025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성료, 포용디자인의 가치 확산



‘포용디자인(Inclusive Design)’을 주제로 한 2025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지난 11월 2일, 65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며 폐막했다. 「너라는 세계: 디자인은 어떻게 인간을 끌어안는가」라는 전시 제목 아래, 이번 비엔날레는 디자인이 개인과 사회, 기술과 인간 사이의 차이를 어떻게 포용할 수 있는지를 다양한 사례로 풀어내며 시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이번 행사는 광주광역시와 (재)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주최·주관하고, 19개국 429명의 작가와 84개 기관이 참여해 총 163점의 작품을 선보였다. 본 전시와 함께 국제 심포지엄과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디자인의 사회적 역할과 공공적 가치를 함께 조명했다.





전시는 총 4개 주제관으로 구성됐다. 제1전시관(세계관)은 포용디자인의 개념과 철학을, 제2전시관(삶관)은 일상 속 배려와 공감을 담은 디자인을 소개했다. 제3전시관(모빌리티관)에서는 모두를 위한 이동 환경을, 제4전시관(미래관)에서는 기술과 인간 중심 디자인이 만나는 포용의 미래를 제시했다.

전시의 성과는 실제 도시 공간으로도 확장됐다. 비엔날레 주제인 ‘포용’의 가치를 광주도시철도 1호선의 핵심 거점이자 관문인 광주송정역에 담아낸 포용디자인 프로젝트가 추진됐다. 최태옥 코디네이터와 KDM+(코리아디자인멤버십 플러스) 학생들이 참여한 이번 프로젝트는 출입구의 시인성 높은 그래픽과 직관적인 표지판, 높낮이형 안내 창구 등 이용자를 배려한 디자인을 제안해 누구나 편리하게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제3전시관에 전시되어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으며, 실제 광주송정역 역사 공간에 구현된다.

2025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막을 내렸지만, 포용디자인의 가치는 앞으로도 광주의 도시 공간과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말띠의 해, 2026년을 향한 다짐

광주교통공사 말띠 직원들의 신년 포부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광주교통공사의 말띠 직원들이 새해의 다짐을 전합니다. 힘찬 도약을 상징하는 말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달려온 한 해를 돌아보며 더 큰 성장과 행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90년생/기계환경팀/주높새 대리

새해는 강인한 기운을 가진 붉은 말의 해입니다. 저는 올 한 해 광주교통공사의 ‘적토마’가 되기로 다짐합니다. 관우의 발이 되어 전장을 누비던 적토마의 든든함처럼, 빈틈없는 설비 유지관리로 시민들의 안전한 도시철도 이용을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장수에게 명마가 있었듯, 저 또한 동료들과 발맞추어 뛰며 우리 공사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일꾼이 되겠습니다.

90년생/성과예산팀/장현빈 과장



새해에는 인사이트를 확장하며 변화에 잘 적응하는 사람, 동료에게 따뜻한 말을 전하며 행복한 조직 문화를 만드는 사람,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해 활력을 동료들에게 전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한해를 만들고 싶습니다.

78년생/운영관제팀/김봉선 과장



올해는 인사이동으로 인해 익숙한 일과 환경에서 벗어나 새로운 업무 환경에 적응해 나가려고 노력하는데만 집중되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40대를 맞이하는 새해에는 곧 다가올 50대에 대비하여 운동으로 체력을 기르는데 집중하면서 아프지 말고 더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내가 되었으면 합니다.

66년생/총무팀/김철남 주임



2026년 병오년에는 웃음과 긍정이 가득한 일상이 이어지고, 함께 일하는 동료 모두가 행복과 보람을 느끼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만큼 좋은 결실을 맺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만사형통의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더 밝고 힘찬 에너지로 함께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승객 편의시설 개선



양동시장역 지상 엘리베이터 착공

모두의 발걸음을 편안하게 잇는 새 길

양동시장역에 지상 엘리베이터가 새롭게 설치된다. 이번 사업은 1번 출입구에 외부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지상과 지하 1층을 직접 연결함으로써 휠체어 이용 시민, 어르신, 유모차 이용 가족 등 누구나 불편 없이 오갈 수 있도록 이동 편의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오랜 시간 지역 상권과 시민들이 바랐던 변화가 시작되었다.

양동시장 상인들은 “무거운 짐을 드는 손님이나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반가움을 전했고, 정성주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는 “더 많은 시민이 도시철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광주시와 광주교통공사,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양동시장상인회 등 지역사회가 함께한 착공식은 이번 사업이 시민 이동권을 넓히는 공동의 노력임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양동시장역 지상 엘리베이터 설치사업은 착공식을 기점으로 2026년 5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역사 출입구 캐노피 개선사업

시민을 위한 더 나은 이동환경을 향한 변화

광주도시철도 1호선 개통 20년이 흐르면서 출입구 캐노피 역시 자연스럽게 오래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공사는 더 편안하고 쾌적한 도시철도 환경을 만들기 위해 1호선 전 역사 출입구 캐노피를 단계적으로 정비하는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남광주역 캐노피 설치 전



▲ 남광주역 캐노피 설치 후

올해 첫 정비 대상은 남광주역 1·2번 출입구다. 이곳은 이용객 통행량이 많고 인근 생활권과 가까워 주변 건물과의 조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곳으로, 개선 효과가 가장 크게 기대되는 지점이다. 앞으로도 공사는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오가는 공간이 더 깔끔하고 편안하게 느껴지도록 순차적으로 캐노피를 정비할 예정이다.

정비가 완료되면 출입구 시인성이 높아져 역 접근성이 한층 좋아지고, 표준화된 디자인을 적용해 1호선 전체가 통일감 있는 모습으로 정돈될 전망이다. 주변 건물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 경관 개선도 기대되며, 남광주역 출입구는 시민 일상 속 또 하나의 도시 풍경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역사 조명 개선사업

더 밝고 안전한 도시철도를 위한 빛의 변화



▲ 상무역 조명 개선 전



▲ 상무역 조명 개선 후

시민들의 이동환경을 더욱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 역사의 조명 환경을 새롭게 정비하고 있다. 장기간 사용된 LED 조명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밝기와 조도가 낮아지는 경우가 있어, 이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자 조명 교체 작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2025년에는 상무역, 광주송정역, 김대중컨벤션센터역에서 조명 개선 사업이 진행됐다. 조명이 밝아지면서 시야 확보가 쉬워지고 이동 안전성이 높아졌다. 또한 에너지 효율 향상 등 운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공사는 2025년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단계적인 조명 개선 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더 밝고 안전한 환경에서 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사는 엘리베이터 설치, 캐노피 개선, 조명 정비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시민의 이동 경험을 더욱 안전하고 편안하게 만들고 있다. 현장에서 발견되는 작은 불편을 놓치지 않고 개선해 나가며, 도시철도가 시민에게 가장 가까운 공공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한 변화를 이어갈 예정이다.

대자보 도시 광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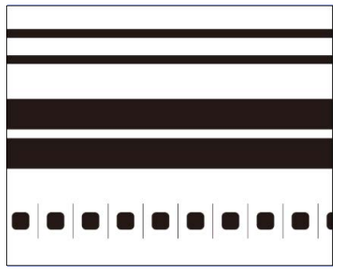
모두의 이동을 연결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전환

광주광역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돕기 위해 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의 이동체계를 구축하는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자전거 인프라와 보행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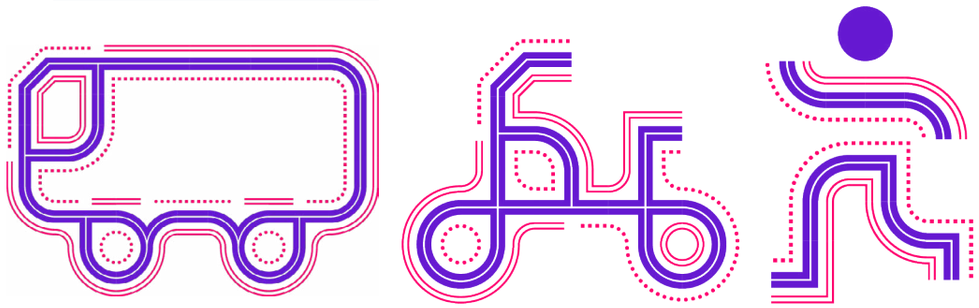
시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보다 명확하게 전달하고자 2025년 7월 '대자보 도시 광주 정책브랜딩 LAB'을 통해 BI(Brand Identity)가 마련되었다. 이번 브랜드 디자인은 방향성을 시각적으로 체계화하여 시민들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브랜드 디자인의 핵심 요소는 대중교통·자전거·보행이라는 세 가지 이동 수단이다. 각각 '굵은 이중선(대중교통), 얇은 이중선(자전거), 점선(보행)'으로 표현한 선의 언어를 통해 도시의 교통 흐름을 시각화했다.

개발된 브랜드 가이드라인을 통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관련 정보를 일관되게 접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시각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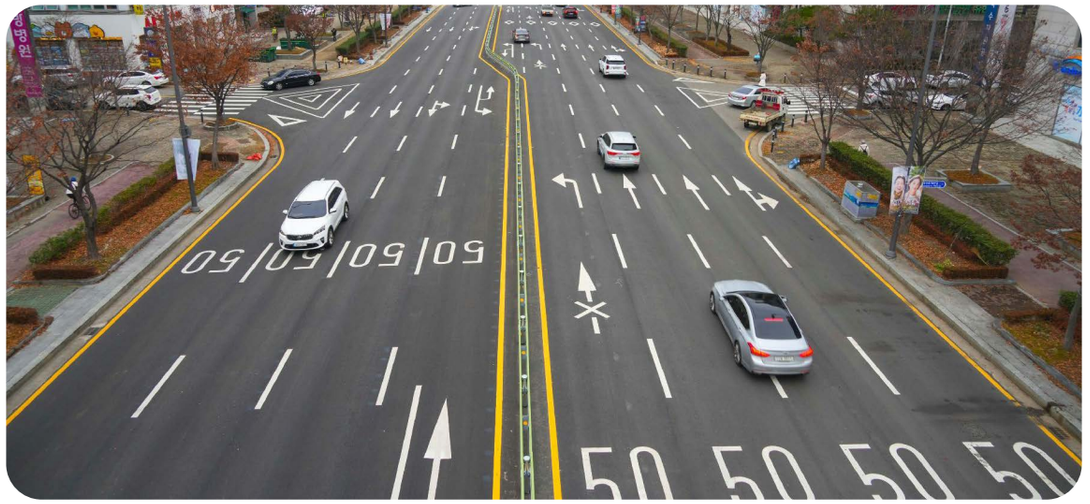
◀ 기본 디자인
얇은 이중선 : 자전거
굵은 이중선 : 대중교통
점선 : 보행



▲ 컬러 픽토그램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광주도시철도 2호선 1단계 도로 전면 개방

6년 만에 트인 숨통, 시민들에게 일상의 도로를 돌려주다



12월 22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로 인해 6년 가까운 시간 동안 막혀있던 광주 곳곳의 도로가 뻥 뚫렸다. 광주 행정의 중심지 시청과 상무지구를 비롯해 금호, 풍암, 백운, 조선대, 광주역 구간의 주요 도로가 원상 복구되며 그동안 왕복 2~4차로로 제한 운행됐던 도로가 도시철도 공사 착공 전 수준인 6~9차로로 회복됐다.

광주시는 공사 기간 동안 거대한 지하 암반과 각종 매설물 등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전담 TF를 꾸려 도로 정비와 교통 개선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금호지구 입구 사거리와 백운광장 일대 등 일부 구간은 자재 반입과 지하차도 공사로 내년 3~6월까지 단계적으로 개방될 예정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속도보다는 작업 인원들과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기에 광주시는 앞으로도 인명사고 없는 안전 공정을 이어가겠다는 변함없는 방침을 이어갈 계획이다.

6년 만에 숨통이 트인 광주 곳곳의 도로는 단순히 차가 다니는 '길'이 다시 열렸다는 데 그치지 않는다. '실천으로 증명한다'는 행정의 소중한 약속을 지켜낸 결과이며, 큰 불편을 겪던 시민들에게 다시 평온한 일상을 돌려주는 첫 발걸음이다.

광주상생카드 1~2월 특별행사 안내
2호선 1단계 공사구간 인근 23개 행정동에 위치한 가맹점에서
광주상생체크카드 이용 시 최대20%환급(기존10%+추가10%)



대상 만 19세 이상 K-패스 (광주 G-패스) 가입자

내용 매월 일정액을 부담하면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정액권 기능을 K-패스에 추가

일반(40~64세)		청년(19~39세) 어르신(65세 이상) 2자녀 부모		저소득 3자녀 부모	
일반형	플러스형	일반형	플러스형	일반형	플러스형
5.5만원	9.5만원	5만원	8.5만원	4만원	7.5만원

환급 ‘K-패스(광주G-패스)’ 적립액과 ‘모두의 카드’ 환급액 중 더 큰 지원금을 자동계산, 다음달 환급